



2017. 04. 08.

1. <정답> ②

「구지가」는 작자연대 미상의 고대가요로,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주술적 목적을 지닌 집단적 노래이다. 영신군가(迎神君歌)·구하가(龜何歌) 또는 구지봉영신가(龜旨峰迎神歌)라고도 부른다. 원가(原歌)는 전하지 않으나, 관련설화와 4구체의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삼국유사》권2 가락국기조에 전한다.

1행에서 ‘거북아 거북아’라고 호칭하여(불러서) 주의를 환기하며, 2행에서 ‘머리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3행에서는 ‘만약 내어 놓지 않으면’이라며 조건을 가정하고, 이어 4행에서 ‘구워 먹겠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환기-요구-조건-위협’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 <정답> ④

정희성의 「저문 강에 삼을 씻고」는 하루 일을 마치고 강물에 삼을 씻으며 고단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노동자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는 노동자인 화자가 하루 일을 끝내고 흐르는 강물에 삼을 씻으며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는 내용인데, 1~4행에서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끝낸 화자는 강물을 보며 삶의 슬픔을 관조하고 있다. 즉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라는 시구에서 나타나듯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또한 5~8행에서는 적극적인 현실 극복의 의지 없이 체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무력감과 실의에 빠진 화자의 모습이 ‘스스로 깊어가는 강’, ‘쭈구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등의 시구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에서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였다기보다는 감정을 절제하는 차분한 어조로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저와 같아서’라는 시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에서 해지는 강가의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화자나 화자의 삶과 동일시되어 그가 느끼는 삶의 비애를 심화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3. <정답> ②

문제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한 한자성어는 ‘囊中之錐(낭중지추)’이다. ‘囊中之錐(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이다.

① 吳越同舟(오월동주):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狀況)에서는 원수(怨讐)라도 협력(協力)하게 됨 / 뜻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됨을 이르는 말.

③ 馬耳東風(마이동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④ 近墨者黑(근묵자흑):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

4. <정답> ③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산업화와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떠돌이 노동자, 술집 작부를 등장시켜 하층민의 애환과 인간적 유대감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영달이는 백화를 업고 대전에서의 ‘옥자’를 떠올리고 눈시울이 화끈해진다. 여기에는 과거에 사랑했던 옥자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동시에, 백화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영달이가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단지 백화의 무게가 어린애처럼 가볍다고 느낀 것이며 그로 인해 ‘옥자’를 떠올리게 되고, 백화가 쇠약해져서라고 생각하며 백화를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다.

5. <정답> ③

2017. 04. 08.

‘고장난 시계를 고치다.’에서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③이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에서 ‘고치다’는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에서 ‘고치다’는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는 뜻으로 쓰였다.
 ④ ‘국민 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에서 ‘고치다’는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는 뜻으로 쓰였다.

6. <정답> ①

‘시망스럽다’는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 ② 활발하다: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③ 산만하다: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④ 잔망스럽다: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자질구레하고 가벼운 데가 있다.

7. <정답> ③

‘강기침’의 ‘강-’은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①, ②, ④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強)-’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 강- (접사)

「1」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ㄱ 강굴/강술/강참숯/강풀.

「2」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ㄴ 강기침/강더위/강모/강서리.

「3」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억지스러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ㄷ 강울음/강호령.

※ 강(強)-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ㄱ 강염기/강추위/강타자/강행군.

8. <정답> ②

‘불은’은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는 뜻의 동사 ‘분다’의 활용형이다.

※ 분다 (동사)

「1」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ㄱ 콩이 분다/북어포가 물에 불어 부드러워지다./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2」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ㄴ 개울물이 분다/체중이 분다/젖이 불어 오르다/식욕이 왕성하여 몸이 많이 불었다./재산이 분는 재미에 힘든 줄을 모른다.

9. <정답> ③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의 중국인 거리를 배경으로 하여 한 여자아이의 성장 과정을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제시된 지문에서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역할 또한 파악할 수 없다.

10. <정답> ④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에서 ④의 진술이 옳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17. 04. 08.

- ①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 ② 첫 문단의 첫 문장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에서 말이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임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11. <정답> ③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졌던 시적 대상의 좌절과 냉혹한 현실 인식을 '바다'와 '나비'의 색채 대비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바다'가 꽃이 피는 '청(靑)무우밭'이 아니어서 서글퍼진 '흰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겹쳐지면서, 바다의 무서운 깊이를 경험하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돌아온 지친 '나비'의 슬픈 비행을 감정을 절제한 객관적인 태도로 그려내고 있다.

- ① '청(靑)무우밭'은 나비가 동경하는 세계로 생명성을 지닌 대상이다. 반면에 '바다'는 냉혹한 현실을 나타내며,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이라는 시구를 통해 바다가 불모성과 무생명성을 지닌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靑)무우밭'과 '바다'는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흰 나비'는 바다의 위험, 즉 수심의 깊이를 모르는 순진한 존재였다.
- ④ 꽃이 피지 않은 '삼월달 바다'는 냉혹한 현실을 나타내며,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라는 표현을 통해 '삼월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정답> ②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소설가 구보가 정오 무렵에 집을 나와 경성 거리를 배회하다가 다음날 귀가하는 여로형 구조를 가진 작품으로, 몽타주 기법과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구보의 내면 의식을 적절하게 포착하면서 풍속, 세태 등을 파노라마식으로 묘사하는 작품이다.

구보는 당시를 '황금광 시대'로 보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이 졸부가 되기도 하고 몰락해 가기도 하며, 순수 학문을 하는 문인들까지 달려든 황금광 시대는 이제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로의 변모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시대에 대해 작가는 씁쓸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자조적 문체를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금광 브로커'가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서술자는 '금광 브로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13. <정답> ④

「유충렬전」은 '유충렬'이라는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영웅 소설이며 군담 소설이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적강한 유충렬이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가문과 국가를 구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부인의 꿈속에 청룡을 타고 나타난 선관이 청룡을 구름 중에 풀어 주며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고 말했다. ㉡은 남악산의 신령이 아니라, 선관이 인간 세상(풍진)에 내려와서 겪게 될 일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악산 신령은 인간계에 내쳐져 천상으로 복귀하게 될 존재가 아니라, 인간계에 내쳐진 선관에게 부인 덕으로 가도록 지시한 존재이다.

14. <정답> ①

- ㉠ 설명 - 說明: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
- ㉡ 묘사 - 描寫: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 ㉢ 서사 - 敍事: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
- ㉣ 논증 - 論證: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

15. <정답> ③

기본형이 '잠그다'이므로 '잠그- + -았- + -다'가 '잠갔다'가 된다.

- ① 낳았다 → 나왔다: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 '낳다'이며, '낳다'는 'ㅅ'불규칙 활용 용언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ㅅ'이 탈락한다.
- ② 넉넉치 → 넉넉지: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2017. 04. 08.

- ④ 이어서 → 이어서: ‘두 끝을 맞대어 붙이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 ‘잇다’이며, ‘잇다’는 ‘ㅅ’불규칙 활용 용언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ㅅ’이 탈락한다. ‘ㅣ’모음 순행동화가 일어난 것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단어는 ‘되어, 피오, 이오, 아니오’ 네 개이며, 이들도 표기할 때는 본래 형태대로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로 써야 한다.

16. <정답> ④

‘ங’은 실질적 음가를 지니지만 훈민정음 초성 체계에는 빠졌다.

※훈민정음 초성 17자 체계: 기본자(5자)+가획자(9자)+이체자(3자)

발음위치 \ 소리의 성질	전청(全淸)	차청(次淸)	전탁(全濁)	불청불탁(不淸不濁)
어금닛소리(牙音)	ㄱ	ㅋ	ㆁ	ㅇ
혓소리(舌音)	ㄷ	ㅌ	ㄸ	ㄴ
입술소리(唇音)	ㅂ	ㅍ	ㅃ	ㅁ
잇소리(齒音)	ㅅ, ㅆ	ㅈ	ㅊ, ㅍ	
목구멍소리(喉音)	ㅇ	ㅎ	ㆁ	ㅇ
반혓소리(半舌音)				ㄹ
반잇소리(半齒音)				ㄷ

※ 훈민정음 중성 11자 체계

구분	전설 모음	중설 모음	후설 모음
고모음	ㅣ	ㅡ	ㅓ, ㅗ
중모음		ㅑ, ㅓ	ㅕ, ㅛ
저모음		ㅗ, ㅓ	ㅜ

17. <정답> ①

‘한밤중’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하며, ‘에’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② 잘할 뿐더러 → 잘할뿐더러: ‘-르뿐더러’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어간에 붙여 써야 한다.
- ③ 시간만에 → 시간 만에: ‘만’은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④ 안 된다 → 안된다: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의미로 쓸 때에는 한단어로 붙여 쓴다.

18. <정답> ①

- 探險(찾을 탐, 험할 험)
- 矛盾(창 모, 방패 순)
- 貨幣(재물 화, 화폐 폐)

- ② ●‘灼熱’(사를 작, 더울 열):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을 의미하거나 ‘몹시 흥분하거나 하여 이글거리듯 들끓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詐欺’(속일 사, 속일 기)
- ‘惹起’(이끌 야, 일어날 기)

- ③ ●荊棘(가시 형, 가시나무 극): ‘나무의 온갖 가시/고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破綻(깨뜨릴 파, 드러난 탄)

2017. 04. 08.

- 洞察(꿰뚫을 통, 살필 찰)

- ※ ‘洞’은 ‘마을 동’으로 읽기도 하고 ‘꿰뚫을 통’으로 읽기도 하는데, ‘洞察’은 ‘통찰’로 읽는다.

④ ● 惡寒(미워할 오, 찰 한)

- ※ ‘惡’은 ‘악할 악’으로 읽기도 하고 ‘미워할 오’로 읽기도 하는데, ‘惡寒’은 ‘오한’으로 읽는다.

惡漢(악할 악, 접미사 한):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

- 箴言(경계 잠, 말씀 언):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을 의미한다.

- 奢侈(사치할 사, 사치할 치)

19. <정답> ①

‘ㄴ, ㅁ, ㅇ’은 입 안의 공기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인 비음이다.

20. <정답> ②

네 개의 선택지 모두 (가)로 시작된다. (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를 통해 (가)와 인과로 연결되고, (라)는 (나)에서 언급한 ‘혜시(惠施)’를 부연하는 역할을 하므로 (나) 뒤에 와야 한다.